

2016
Winter

VOL.9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Letter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04

Good Doctor
환자가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08

Introduction
고난도 하이브리드수술까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11

Column_1
술, 잘 알고 마시자 12

Column_2
세상에 남기는 나의 족적 하나 – 한방난임치료에 관하여 14

Smart Tip
겨울!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 16

Interview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인생을 배워 갑니다 18

Essay
구름처럼 오고 가는 인생 20

Art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파블로 피카소 2 22

Travel
눈꽃 사이로 함께 걷는 서오릉 24

Photo Story
동국대학교의료원 그 안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26

Zoom in Dongguk
DUMC NEWS 27

Together
발전기금 안내 31

함께

‘쓰레기를 맛보자(Taste the Waste)’

독일의 영화 제작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발렌틴 툰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제목입니다. 그는 멸절한 식재료가 다량 버려지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식재료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불편한 진실도 밝혔고요, 엄청난 양의 ‘예비 쓰레기’ 해결을 위해 고민도 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바로 ‘길거리 냉장고’입니다. 2010년 그가 찍은 이 다큐멘터리는 독일에 큰 반향을 몰고 왔습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진열대에 올리지 못하는 식재료를 더 이상 냉장고 안에 방치하거나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않아도 된 거지요. 대신 길거리 냉장고에 넣어두면 꼭 필요한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가 됩니다. 길거리 냉장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답니다. 내가 먹을 만한 음식만 나눌 것, 돈을 받고 팔지 않을 것.

길거리 냉장고는 우리나라에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들이 이웃과의 나눔 운동 일환으로 운영하는 데가 여럿입니다. 처음엔 음식을 가져다 두는 사람보다 가져 가려는 사람이 더 많아 애를 먹고, 가져가는 양을 제한한다고 써뒀도 싹쓸이하다시피 담아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법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답니다. 냉장고 안 재료로 김밥과 주먹밥을 만들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찾아 나서거나, 텃밭을 가꿔 냉장고를 채워주는 주민들도 생겼답니다. 물 좋은 명태, 먹음직스런 고구마를 푸짐하게 사서 이웃과 나누던, 함께 사는 공동체의 가치가 길거리 냉장고를 차곡차곡 채워갑니다. 길거리 냉장고야말로 고립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서로 이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냉장고이지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사막도 많고 정글도 있어 멀리가려면 열악한 환경과 무서운 짐승들 속에서 생존해야하기 때문에 길동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생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혼자 성공했을 때 보다 동료와 함께 성공했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나눈 숫자만큼 커지기 때문이겠죠.

동국대학교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치료사, 사무직 직원 등 수십가지가 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환우의 아픔을 함께하고 치료하기 위한 바람으로 일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의 직종이 모여 병원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환자 치료는 혼자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격려해주고, 환자치료에 지친 후배들을 더 챙겨주면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곳인 만큼 더 많은 기쁨을 만들고 싶습니다.

동료와 함께 멀리가면서 일하기 좋은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동행이겠죠.

의료진과 교직원 한마음으로 ‘재도약’ 다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원장과 전 교직원은 지난 10월 8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심학산에서 ‘개원 11주년 기념 가을 등반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길었던 여름 뒤에 찾아와 더 반가운 가을을 만끽하며 서로를 밀고 이끌며 정상에 함께 올랐지요. 제법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정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다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불교종립병원의 10년 열정이 100년의 희망으로 싹트길 염원하는 마음도 모았지요.

등반 이후엔 레크리에이션 팀별 미션, 행운권 추첨과 게임을 진행하며 모처럼 병원 밖에서의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전 직원이 팀을 나눠 코스별 미션 사진 찍기 콘테스트도 열었습니다. 특별상, 웃음상, 재미상, 감동상, 산악왕상 등 꾸집한 시상과 상금이 걸려 팀별 경쟁도 제법 치열했지요. 병원생활이라는 게 늘상 긴장되고 분주하다 보니 하루에 몇 번씩 지나쳐도 눈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기 힘들었던 직원들과 마주보고 웃고 추억으로 남을 사진도 한 장씩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과 직원들에겐, 환자와 보호자들이 든든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한껏 충전한 하루이기도 했지요.





어르신 찾아가는 한방진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웃의 고통을 나누는 자비 실천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내원하는 환자를 보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내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의료나눔이야말로 불교 종립병원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마땅히 해야할 일입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지만 가난한 이웃들에겐 더 견디기 힘들 테니까요.

동국대학교병원이 매년 마련하는 ‘한방의 날’ 행사도 의료나눔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본원 1층 로비에서 한방의 날을 열었지요. ‘한방으로 더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약재와 보양제 전시, 한방홍보 동영상 상영, 한방 궁중차 서비스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한편 머리가 좋아지는 총명단 만들기, 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향낭 만들기 같은 한방 체험을 해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예방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한약재를 이용한 일상용품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지요.

이번 한방의 날엔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진료도 있었습니다. 고양시 각 기관으로부터 미리 추천을 받아 의료진이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해 진료를 했지요. 지난해엔 의료진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취약 계층의 환자들을 본원으로 초대해 한방병원 각 진료과에서 치료를 맡아주기도 했습니다. 올핸 내원조차 할 수도 없는 어르신들이었으니 의료진의 방문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의료진은 11일과 13일 양일간 어르신들을 방문해 간단한 문진과 진맥을 한 후 침 치료를 하고 소도환, 청간환, 경옥단, 청심원 등 한방상비약 세트도 전달했습니다. 한 번의 방문 진료로 어르신들의 몸이 금세 가뿐해지진 않았겠지만, 아플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됐을 겁니다. 머리말에 한방상비약도 뇌뒀으니 마음 한켠도 든든해졌지요.

천사를 위한 따뜻한 아침식사

병원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지요. 누군가의 따뜻한 눈길, 손길 한 번이 더없이 고마운 곳이기도 하고요. 아픔과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운 환자들에겐 늘 가장 가까워서 힘이 돼주는 간호사가 ‘천사’인 이유일 겁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를 보다 전문적으로 간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도 점차 확대하고 있지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러한 간호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0월 5일, 1004데이를 맞아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1004데이는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로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가 정한 봉사의 날(10월 4일)입니다. 간호사들은 매년 1004데이를 맞아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을 챙겨주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지요.

올핸 환자도 보호자도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에게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공다현 간호부장은 이날 천사의 날개를 달고 간호사들의 근무 부서를 찾아가 주먹밥과 샌드위치, 음료를 나눠줬습니다. 온기를 담은 응원의 말과 함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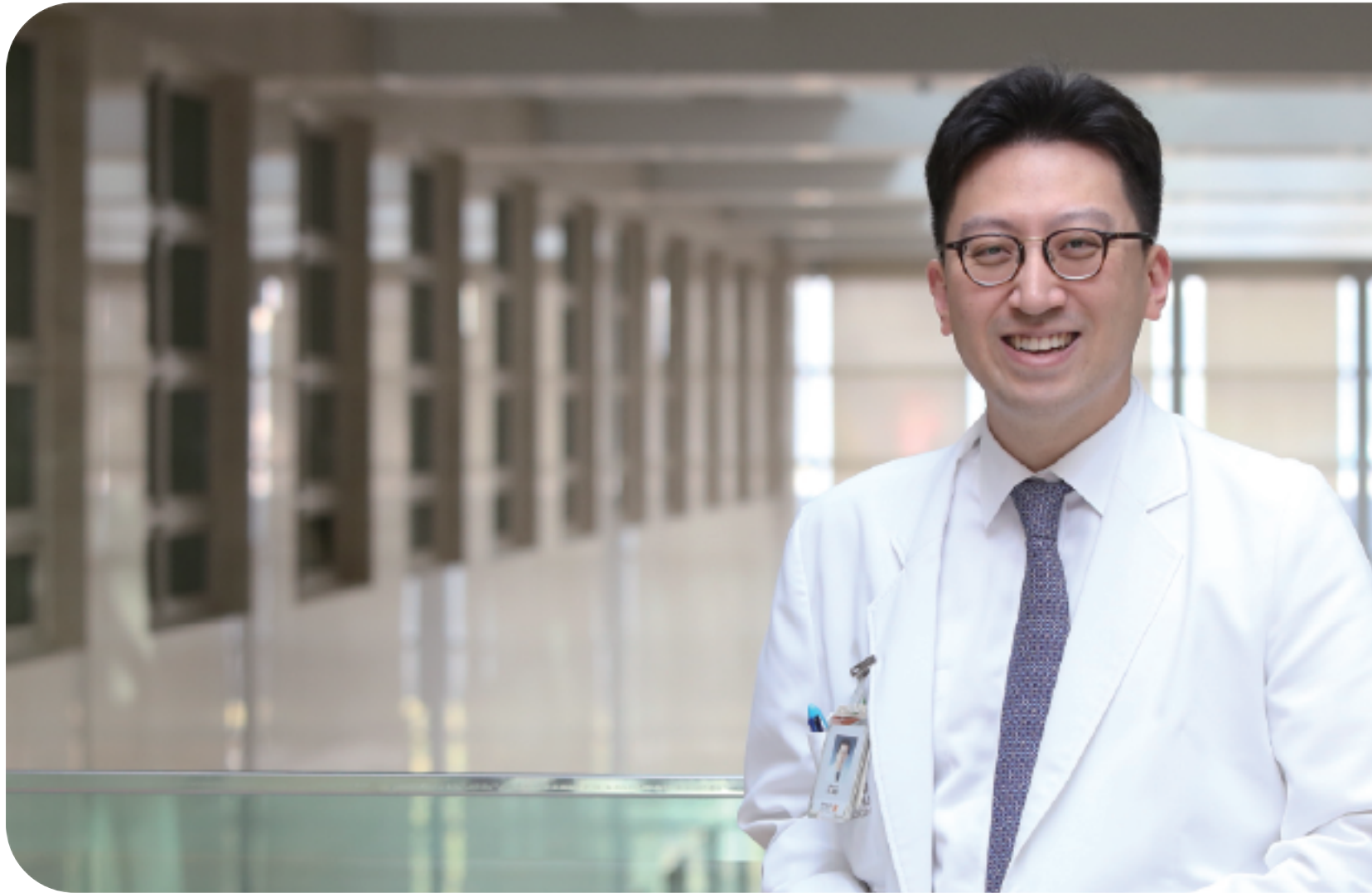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돌보는 데 익숙한 간호사들에겐 낯선 일이지만 새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을 겁니다. 간호사들을 위한 따스한 응원은 다시 환자에게 희망으로 전해졌을 거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1004데이의 의미가 아닐까요.

환자가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의대에 들어가서부터 남들이 안하는 것,
보람있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본과에 올라가면서 고민없이
흉부 심장수술하겠다고 선언했지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흉부외과

이재항 교수



24시간 365일 언제나 스탠바이

흉부외과 이재항 교수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다.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의사가 될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아픈 사람, 제일 위급한 사람을 고쳐주고, 가장 보람있는 진료과를 가고 싶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 바로 흉부외과였다.

흉부외과 수술팀은 언제나 24시간 대기조다. 언제 응급환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개인생활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아이랑 뮤지컬 보러가기로 약속하고서 못 간 경우도 있다. 아이가 많이 아프데 아내까지 바빠서 아이를 돌봐야하는 상황에서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병원으로 출발이다.

24시간 언제나 전화가 올리면 모르는 번호라도 무조건 받는다. 아이랑 수영장에 놀러가도 방수팩에 전화기를 가지고 들어간다. 남들 다하는 골프로 운동 좀 해볼까, 하고 나갔다가 응급전화를 받고 수술실로 달려오기를 두어 번 했더니 이제 아예 불러주지도 않는다. 그깟 골프 안쳐도 그만이라 아쉬움도 없단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살리는 일이 이 교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

대동맥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으로 3중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동맥 내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면 높은 대동맥 압력으로 인해 내막이 찢어지면서 박리된다. 이때 극심한 흉통이 찾아온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왔다가 CT촬영 후 대동맥 박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대동맥 박리 진단이 떨어지면 바로 이재항 교수에게 콜이 간다. 응급상황인 만큼 서둘러 인조혈관을 넣어 혈관벽을 보강해주면 위기에서 벗어나 그 환자는 살게 된다.

다리에서 정맥이 늘어나면 하지정맥류가 오는 것처럼 대동맥이 늘어나면 대동맥류라고 한다. 이것은 주로 복부에서 발생한다.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왔다가 대동맥류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대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대동맥 박리, 대동맥류, 이런 응급환자들이 주로 이재항 교수의 환자들이다.

“지난주 목요일 응급실로 심장정지 환자가 들어왔어요. 119에서 CPR하면서 들어와 에크모(심장과 폐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신해주는 기계) 장비를 투입하고 급하게 수술해서 살렸습니다. 경과를 지켜보느라 팀원들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집에 못가고 지키고 있었지요. 환자분 상태가 좋아져서 오늘은 우리 스태프들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도 못가고 환자곁을 지키는 날이 부지기수다. 일주일에 절반은 병원에서 보낸다.



수술 잘 하는 의사, 사람 살리는 의사

이재항 교수는 환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서울 경기지역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심장 대동맥 응급 환자 발생 시 365일 전원이 가능하다는 리플렛을 직접 만들어 보냈다. 병원 측에서도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말할 정도였다.

“외과 의사들은 수술 욕심이 좀 있어요. 많이 해본 사람이 아무래도 수술을 잘 하지요. 저는 교수하겠다고 의사된 게 아니거든요. 수술 잘하는 의사,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게 저의 목표였어요.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도 최소한 서울에 있는 Big 5 병원에 간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 병원에 오면서 시작한 이런 노력 덕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제 일산지역에서 대동맥 응급수술을 제일 많이, 잘 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병원에 부임한 이후 응급 흉부외과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낸 적

없이 살려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보내온 환자는 수술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다시 그 병원으로 돌려보내 치료를 마치도록 하기 때문에 병원간의 신뢰가 두텁다. “환자를 꾸준히 우리 병원으로 보내준다는 것은 환자와 해당병원과 우리 팀 사이에 라포(상호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이 교수는 이런 점이 더 흐뭇하고 기분 좋다. 지난해 수술의 절반 이상이 타 병원에서 이관된 환자들이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이재항 교수는 레지던트 시절 재미난 경험을 했었다.

2007년 SBS 드라마 ‘외과의사 봉달희’에서 의료조언 해준 경험이 의사생활 최대의 일탈이었다. PD, 작가들과 2주 동안 합숙하면서 레지던트 생활에서 겪은 에피소드 많이 알려졌다. 아기에게 심장이식하는 장면, 의료진이 2, 3일 동안 환자 소변통만 들여다보다가 소변이 나오자 환호하는 장면들이 이 교수의 이야기였다. 소변이 무슨 대수냐 싶겠지만 심장 수술 후 심장 기능의 회복 징후가 소변이기 때문에 소변이 제대로 나오느냐가 수술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지표다.

그 시절 잠시 새로운 경험을 한 이후 이재항 교수에게는 다시 병원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이 교수와 대화 하는 내내 ‘이 사람의 우주는 병원이고 그 우주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병원에 처박혀 있는 것이 좋아요. 환자들 좋아져서 나가는 모습 보면 정말 좋아요. 행복하죠.”

소독약 냄새나는 병원에서 늘상 수술복 입고 생활하면서 무언가 좋은지 어린 아이마냥 환하게 웃는 이재항 교수.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되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 두 손이 아름답게 빛나보였다.

흉부외과 이 재 항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진료분야 심혈관외과, 대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말초혈관질환	진료시간 오전 » 화, 금 오후 » 화 문의 흉부외과 외래 031·961·7801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다리혈관센터 고난도 하이브리드수술까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문진에서 검사결과까지 원스톱 처리 혈관전문의가 수술에서 시술까지

환자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다리혈관센터는 2009년 처음 문을 열었으며, 지금까지 하지통증, 부종, 파행 등의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다리혈관센터의 장점은 환자가 병원을 처음 찾아온 날 진단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종합병원은 기다림이 다반사인 곳이다. 증상을 느껴 외래로 방문하면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려서 문진하고 검사를 받는다. 검사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아서 다시 결과 들으러 방문할 날을 예약하고 귀가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혹시나 나쁜 결과는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게다가 마음고생까지, 환자는 괴로운 시간을 지낸다.

그런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다리혈관센터는 이런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문진하고 검사하면 바로 그날 검사결과를 알려주고 수술할 것인지 시술할 것인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첫 방문에서 수술까지 너댓 번 방문해야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짧아졌다.

다리혈관센터는 환자와 환자 사이의 간격이 좀 넓다. 한 환자 당 20분을 잡고 예약을 받고 있다. 이재항 센터장은 “환자를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검사결과까지 알려주기 위해 진료시간을 넉넉히 잡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술에서 수술까지, 한 번에 시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술법

일반적으로 피부절개를 하는 다리혈관 수술은 외과의사가 하고 시술은 보통영상의학과 또는 내과의사가 한다. 이곳 다리혈관센터는 환자들이 진단에서 수술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술실에 수술장비와 시술 장비를 모두 갖춰 놓았다. 이곳에서 수술과 시술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재항 센터장은 시술 기법을 배워서 직접 시술도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과 시술 중에 경과치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 처치한다. 다리혈관 치료가 때로는 시술과 수술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시술자와 수술자가 다르면 따로따로 날짜를 잡아 환자가 두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이곳 다리혈관센터는 하이브리드 수술이 가능하기에 두 가지 처치가 한번에 이루어진다.

“보통 한 가지만 하는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잘 하는 것을 추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센터는 의사들이 두 가지 모두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 드립니다.”

이재항 센터장은 다리혈관센터가 일산지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얼마 전에는 타 지역 대형병원에서 하이브리드 수술법 및 관련 장비의 셋팅을 문의해와서 센터장이 직접 가서 조언해주고 왔다.

알고보니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다리혈관센터는 다른 병원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병원이었다. 병원이 배우러 오는 병원, 이보다 더 확실한 설명은 없을 듯 싶다.

진료문의 다리혈관센터 031·961·7801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술, 잘 알고 마시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소화기내과

서정일 교수

전문진료분야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담석,
췌장염, 담도암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오후 » 월, 화

문의
소화기내과 외래 054 · 770 · 8506



연말연시 어김없이 찾아오는게 송년회, 신년회, 친목회, 동창회 등의 각종 모임이다. 당연히 술자리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술은 모임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서로의 마음을 달래어 정을 나누는데 도움을 주지만, 음주 횟수와 음주량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몸에는 독이 된다는게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 ‘술과 건강에 대한 세계 현황 보고서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 15위이며, 소주와 같은 증류주 소비는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3천명 이상에서 음주로 인한 암이 발생하고, 1천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한다. 지속적인 과음은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알코올 대사의 대부분이 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알코올 간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알코올 간질환의 범주와 자연경과는 어떠한가?

음주에 의해 발병하는 알코올 간질환은 알코올 지방간, 알코올 간염, 알코올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의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다. 알코올 지방간은 간내에 지방이 침윤하여 간이 비대해진 상태인데 술을 끊으면 정상 간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음주하게 되면 간세포의 염증 및 괴사를 동반하는 알코올 간염으로 진행된다. 알코올 지방간이나 알코올 간염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간이 딱딱해지고 간 표면이 거칠어지는 알코올 간병변증으로 진행된다. 알코올 간경변증은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

알코올 간질환의 임상증상은 어떠한가?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간혹 경미한 간비대가 나타난 경우 우상복부에 가벼운 압통을 호소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염에서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미한 발열, 간비대, 황달과 식욕감퇴를 호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가 동반되기도 한다.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복수, 식도 정맥류 출혈, 간성혼수 등의 문맥압 항진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술, 어느정도 마시면 무리가 없을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강에 무리가 없는 적정 음주는 남자의 경우 하루에 2 표준잔, 여자는 하루 1 표준잔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이다. 1 표준잔은 알코올 12g의 양으로 알코올 농도가 4,5%인 355mL의 맥주 1캔, 알코올 농도가 약 20%인 소주의 경우 75 mL인 1잔 반, 6% 알코올인 막걸리 1사발, 12% 와인 130 mL의 와인 1잔, 40% 양주 40 mL 1잔이 대략 1표준잔에 해당한다. 적정 음주는 비음주에 비해서 심장 질환의 위험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허혈성 뇌질환과 당뇨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연관성의 인과 관계가 확립되지 않아 비음주자에게 음주를 권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B형, C형 바이러스 간염환자는 적정 음주를 하더라도 간질환 진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절주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 간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는 무엇인가?

알코올 간질환 발생에 있어 술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음주량이 중요하다. 남자에서 하루 평균 40g, 여자에서 하루 평균 20g 이상의 음주는 알코올 간손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여자에서 알코올 간질환 발생 위험이 높는데 남자에 비해 위내 알코올탈수소효소가 적어서 알코올의 분해가 느리고, 높은 체지방과 에스트로겐으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더 잘 발생되기 때문이다. 비만은 알코올 유발 간손상의 중증도를 증가시키며, 흡연은 알코올 간병변증의 위험인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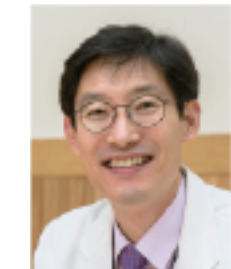
알코올 간질환의 예방은 어떻게 하나?

금주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지만 어쩔수 없이 음주해야 할 상황이면, 과음하지 않고 자기 주량에 맞게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하기 때문에 공복시 술을 마시거나 폭탄주는 삼가는 것이 좋고, 음주횟수를 줄이고 특히 음주 후 최소 3일 정도쉬는게 중요하다. 비만과 흡연은 알코올 간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체중조절과 금연이 중요하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세상에 남기는 나의 족적 하나

한방난임치료에 관하여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 의학과

김 동 일 교수

전문진료분야
건강증진, 불임, 갱년기, 자궁근종, 월경통, 골반통, 수족냉증, 다낭성 난소, 산후풍, 피부미용 및 탈모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목, 토
오후 » 월, 화, 목, 토

문의
한방여성 의학과 외래 031·961·9060



“선생님 우리 딸 임신 좀 하게해주세요.”
다섯째인 막내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온 어머니는 머뭇거리는 딸보다 먼저 하소연을 한다. 서른일곱인 딸은 결혼한 지 1년 반이 되었고, 3개월 정도 피임을 한 후 이내 중단하였지만 1년이 넘도록 임신이 안 되었고, 산부인과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한다. 딸보다 더욱 절절하다.

“이번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착상이 잘되지 않는다고 해요. 벌써 세 번이나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흔 살 그녀는 눈가가 젖었다.

“자궁근종이 있다는데... 그 때문일까요? 결혼 직후부터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벌써 8개월이나 지났어요.” 서른여섯, 그녀는 초초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가장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된다. 목마름과 숨 가쁨은 육체에 가해지는 그러한 고통의 극단적인 예가 된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누구나 아이는 절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그래야 한다. 생각 없이 철없는 예비아빠 시절엔 나도 그랬다.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전공의였으나 이제 분만실 앞에서의 불안과 염려를 지우기 위해 하릴없이 넘기

기만 하던 대학원 영어시험 교재의 표지 색깔이 아련하게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주력하는 분야가 난임(難妊)이다. 난임, 과거 ‘불임(不妊)’이라는 말이 쓰이던 이 문제는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저런 분들의 사연은 범주화 될 수 있겠지만 저마다의 사연은 간절하고 눈물겹다. 난임 가정의 스트레스는 그런 상황에 놓여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공기의 소중함을 잊는 것과 같다.

임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난자가 가장 중요하다. 젊고 건강한 여성의 난자가 그렇다.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 이루어진 수정란과 배아의 상태가 중요하다. 건강한 난자에 건강한 정자가 더해질 때 건강한 배아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은 좋은 씨앗이나 건강한 모종으로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 착상의 차례이다. 자궁내막의 착상에 좋은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 밀거름이 충분하고 물 빠짐이 좋은 밭이 농사의 두 번째 관건인 것과 같다.
늦은 결혼과 스트레스는 난자의 질을 저하시키고, 성생활의 빈도를 감소시키며, 정자의 숫자나 운동성마저도 떨어뜨릴 수 있다. 35세를 지나면 임신능력이 떨어지고 41세를 지나면 현저히 감소하며, 44세에 이르면 가임력이 거의 없어진다. 이 시기의 남성들은 성욕이 감소하게 되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사랑을 숙제로 추락시킨다. 하여 생각해내는 일이 배란일에 맞춰 몰아서 숙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란일을 점지하려고 병원 가는 일이 여자의 마음으로 마냥 수월하지도 않고, 받아든 숙제를 몰아서 해야 하는 남자 역시 자기는 기계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하여 그들은 자주 싸우게 된다. 어찌다 배란 다음날 새벽에 숙제를 해내나 이때는 이미 임신이 가능한 때가 아니다. 임신의 창문이 닫힌 뒤다. 로미오의 외침은 줄리엣에게 들리지 않는다.
난임 여성의 스트레스는 자존감의 하락을 위주로 하는 개인적 스트레스와 친정, 친구 및 직장 동료 간에 느끼는 관계적 스트레스로 총칭히 스스로를 옥죄든다.

한방치료는 이러한 난임 환자의 스트레스 관리, 난자와 정자의 상태 개선, 골반혈류 증가를 통한 자궁내막 착상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우선 침치료는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및 성선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난소혈류량 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여 난임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험관 시술을 위한 치료에서는 난자와 배아의 질 개선 효과도 검증되었다.
한약치료는 침치료와 달리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겠지만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은 2011년 경기도 난임치료 사업에서 유효성(임신율 24%, 유산 없는 출산)과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고, 그 이전과 이후의 다른 연구나 임상현장에서 간독성이나 태아에 이상을 일으킨 사례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한약은 침치료와 같이 난임의 제반 요인에 유효하며, 특히 난자와 정자의 질 개선이나 착상을 개선에 효과적이다.

인술(仁術)의 시작은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치료를 환자에게 시술하지 않는 것’이다. 한방치료는 인술로 행해진 난임 치료임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난임(Social Infertility)’를 극복하는데 유효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가정을 이룬 누구라면 저마다 세상에 남기는 자기의 족적 하나 만들어 그 꼬물대는 모습에 감탄하게 하며, 달큰한 아기 젖 내음을 맡게 하고 싶은 것이다.

겨울!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봄철과 마찬가지로 환절기에 몸이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 적절한 체온 유지가 필요한데 큰 일교차 때문에 적당한 의복을 준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신체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고, 충분한 면역이 준비되지 않다면 환절기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고생할 수도 있다. 겨울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추위에 적응해야 한다.

적절한 습도유지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낮아지게 되어 다양한 호흡기계 증상 뿐 아니라 안구건조증, 피부가려움 등의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습도 유지가 꼭 필요할 것이다. 특히 수면환경에서의 습도 유지가 중요하므로 감기 예방 및 증상완화를 위해서 빨래나 깨끗하게 관리하는 가습기 등을 이용하여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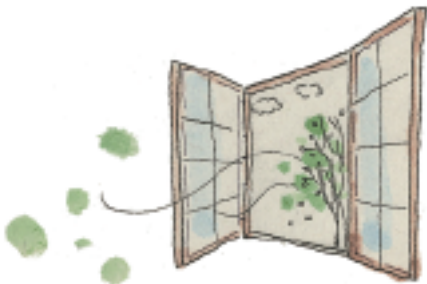
적절한 운동으로 체중관리

체중관리는 여름철에 신경을 많이 쓰고 겨울에는 반대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추위 때문에 외출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 평균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다. 체중관리는 생활습관 교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환기를 자주하자

실내환경 관리도 중요한데 춥다고 환기를 등한시하게 되면 오히려 바깥 공기보다 실내공기가 더 나쁘게 변할 수 있다. 실내에서도 먼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고 적절한 산소농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 공기가 아주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2회 이상의 적절한 환기가 겨울철 실내 환경유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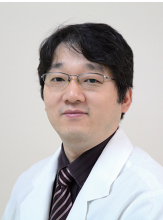
독감예방은 청결한 손씻기로 부터

겨울철에는 독감 및 상기도 감염이 증가하는 환경이 된다. 차고 건조한 공기에서 바이러스 구조가 더 오래 유지되어 전염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기 매개성인 경우 전파범위가 증가하고 전염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더 많이 퍼지게 된다. 직접 호흡기계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위생 관리이므로 자주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고 알코올로도 불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꼭 비누로 씻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맨눈으로 보이는 정도의 오염인 경우 물리적인 제거가 필요하므로 꼭 손을 비누를 이용하여 씻어주는 것이 좋다.



高지방 低탄수화물 다이어트! 건강에 해로울수도

최근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요법이 방송에 소개된 이후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식단은 과거 황제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등과 같이 일종의 극단적 다이어트 방법과 유사하여 장기간의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작정 방송을 따라하기 보다 정확한 근거를 파악하여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요법의 지속적인 장기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일부 소수의 결과로 일반화 시키려는 위험이 있고, 체중 감량의 효과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효과로 볼 수 있어 고지방식단의 위험을 배제하기 힘들다. 단지 극단적인 고지방 식단이 아닌 경우라면 지방 중 불포화지방산이 이로운 점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로는 불포화지방산의 섭취가 사망률을 낮추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 고지방식사가 아니라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산 및 트랜스지방의 섭취는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 섭취는 늘리는 것이 사망률과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요법은 다른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체중감량효과는 있으나 장기유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섭취에 따르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권고하기 어렵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김 유 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병원 전공의
서울대병원 전임의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 비만, 금연

진료시간
오전 » 목, 토(격주 진료)
오후 » 월, 목

문의
가정의학과 외래 031·961·7490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인생을
배워 갑니다.”

아름다운 가위손
미용 자원봉사자
이 명 원

머리를 다듬으며 마음을 어루만지다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오후가 되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5층 기도실 앞에는 머리를 다듬어야 하는 환자들이 줄을 서서 미용봉사하는 이명원, 고재희 씨를 기다린다. 줄지어 기다릴 환자들이 눈에 밟혀서 이명원 씨와 고재희 씨는 봉사가 시작되는 1시보다 30분 일찍 장소에 도착한다.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은 환자들, 섬없이 가래가 끓고, 토하기도 하는, 아픈 환자들이 행여나 기다리다 상태가 나빠질까봐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다. 혹시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환자분들이 힘들어질까봐 가위 놀리는 손은 더욱 빨라진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눈에 선해서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명원 씨는 3년째 한 달에 두 번하는 미용봉사를 단 한번도 거른 적이 없다. 30여 년전 미용기술을 배워서 미용실을 운영할 때부터 미용봉사를 시작했다. 노인복지관, 군부대, 장애인 시설에서도 미용봉사를 해왔다. 노인복지관은 지금도 한달에 한번씩 꾸준히 다녀온다. 미용봉사가 한두 해가 아니지만 지인의 소개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와서 봉사를 시작한 이후 느낌은 사뭇 달랐다. 한달에 두 번, 1시부터 4시까지 세 시간 미용봉사를 하는 동안 하루 평균 30~40명의 환자들이 다녀간다. 가끔은 환자들 머리를 매만져주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젊은 아가씨가 수술 때문에 머리를 밀어야했을 때 이 씨는 울면서 머리를 밀어주었다. “한창 멋 부리고 꾸밀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에 머리 수술을 받는다고 머리를 뽀뽀 밀어야 하니 얼마나 딱해요.

글 이명혜 기자 사진 이성오 기자



가여워서 눈물이 줄줄 흘렸어요. 머리는 또 자라면 되니까 수술 잘 되어서 예쁘게 꾸미고 다니라고 빌면서 머리를 밀어줬어요.” 이명원 씨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머리를 깎으러 오면 마음이 더 안됐다. “한번은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몸에 마비가 와서 지팡이를 짚고 머리를 다듬어 달라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나이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린 나이에 어찌다 그런 병에 걸렸을까 너무 딱했어요. 젊은 환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아프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단골손님되지 말고 어서 퇴원하세요”

사람들이 보통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헤어스타일을 바꾸듯 투병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은 깔끔하게 머리를 손질하면서 기분 전환을 한다. 파마도 아니고 염색도 아니고 오로지 커트만 하니까 주로 남자 환자들만 머리를 다듬으러 올 것 같은데 여자 환자들도 많이 찾는다.

“여자 환자들도 머리를 다듬죠, 왜 안 다듬겠어요. 아파도 여자는 여자잖아요. 병문안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보이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외상환자들은 병실로 찾아가서 머리를 손질해준다. 한손으로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받치고 한손으로 빨리 머리를 다듬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환자가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 중에는 장기 입원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번 단골처럼 머리를 깎는 분들도 있다. 지난번 보았던 환자를 또 만나면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아이고 아직 퇴원을 못하셨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한번은 할머니 환자분이 머리 하러 오셨다.

“마치 친정어머니를 보는 것같아 참 예쁘세요, 하고 칭찬해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빨리 죽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마음이 아팠죠. 사는 게 뭘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할머니의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명원 씨는 병원에서 미용봉사를 하면서 인생을 미리 경험하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생로병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분명하다.

함께 해서 더욱 행복한 삶

“미용이라는 좋은 기술 배워서 애들 키우고 잘 써먹었으니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죠. 한번 봉사하기로 했으면 꼭 해야지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용납이 안되지요. 동국대학교병원 미용봉사는 제가 아프지 않고 봉사할 수만 있다면 계속 할 생각이예요.”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어서 식사동 병원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린다. 집에서 아침 10시에 출발해 병원에 왔다가 봉사 마치고 집에 가면 날이 어둑어둑해진다. 그러나 부지런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오늘도 많은 분들 머리를 만져드리면서 병상에서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사업실 강보라 복지사는 환자들이 미용봉사자들의 솜씨에 만족하며 언제 또 오는지 기다리고 병원측에 문의도 한다고 말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는 100여명의 봉사자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병원측에서는 감사의 표시로 독감무료 예방접종 등 작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00여 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봉사를 신청하는 환자들도 있다. 그분들은 퇴원 후 병원에 와서 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봉사가 봉사를 낳고, 마음이 마음이 이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우리 사회는 역시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곳임을 확인하며 마음이 훈훈함을 느꼈다.

구름처럼 오고 가는 인생



법상(法相) 스님

불심도문 큰스님 은사로 출가.
'목탁소리(www.moktaksoni.kr)' 지도법사,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진행,
저서로 <눈부신 오늘>, <날마다 해피엔딩>,
<금강경과 마음공부>, <붓다수업> 등이 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라. 어떤 예쁜 구름과 못난 구름이 정해져 있을까? 더 좋거나 나쁜 구름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저 구름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다만 가만히 눈길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구름을 찍는 사진작가라면 어떨까? 그가 만약 놀랍도록 아름다운 구름의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면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너무나도 멋진 구름 풍경을 보았지만, 사진기 배터리가 다 되어 찍지 못했다면 땅을 치고 후회 할 것이다.

사실 구름 자체는 아무런 실체도 의미도 없지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는 집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행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돈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전부 사람이 아무 것도 아닌 구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일 뿐이지 않은가.

사실 이 구름의 생과 사가 우리 인생의 생과 사와 비슷하다. 사람도, 존재도, 일도, 사건도, 삶의 모든 것들은 구름처럼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허망한 것일 뿐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도 그건 나쁘거나 좋은 사건이 아니라 그저 아무 분별할 것 없는 하나의 중립적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다. 그러나 사진사가 특정한 구름을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얽매이듯, 다만 이 평범한 삶에 우리 스스로 좋거나 나쁘거나 시비를 붙이며 얽매이고 있었을 뿐인 것이다.

버스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다면 사람들은 버스여행만 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기차를 타고 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라고 여기겠지만 오히려 기차를 타고 갔으면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즉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고 분별을 한다. 이처럼 우리는 그 분별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아무 문제없는 삶을 문제화시켜 버린다.

하늘의 떠가는 구름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거기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저 공할 뿐이고, 허망할 뿐이며,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일 뿐이다.

그저 구름이 오고 가듯, 우리의 삶도 그저 그렇게 왔다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라.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일이 일어나서 괴롭다고 여기겠지만, 사실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막았을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알 수 없다.

‘오직 모를 뿐’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하심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 일도 없다. 그저 완전한 하루 하루가 있을 뿐이다. 촉목보리(觸目菩提)란 말처럼 삶 그대로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여기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몇 살까지 살다가 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기준 같은 것은 없다. 10살에 죽든, 50살에 죽든, 100살까지 살다가 죽든 그것은 그저 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병이 나를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멸절한 일반인에 비해 더 괴로운 것은 아니다. 병이 내게 왔다는 것은 어떤 큰 ‘문제’나, ‘고통’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중립적인 인연이 온 것일 뿐이다. 그것을 ‘고통’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지금 이 병이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 큰 병이나 죽음이 그 다음 순간에 찾아왔을지 어찌 알겠는가.

병에서 완쾌가 되고 나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병과 함께 있는 이대로 사실은 원만구족하다.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 다만 병 때문에 문제라고 여기는 내 마음이 문제일 뿐.

병은 없어도 병 보다 더 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도 많지 않은가. 실연의 아픔으로 죽고 싶어하는 이들과 있고, 시험 탈락이나 진급 누락이나 실직이나 배신, 회사 부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 삶에는 병 말고도 다양한 아픔들이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아픔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고팔고라고 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고태바다의 사바세계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을 통해 지혜를 깨달아가는 영적인 성장의 별이 바로 이 지구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를 찾아 온 병이라는 인연을 분별하지만 앓는다면 그 모든 병과 아픔은 그것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지금 아프다면 그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지금 아파야 할 인연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문제’로 온 것이 아니라, ‘진리’로써 내게 온 것이다. 그러니 그 병을 받아들이지언정 문제시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서산대사는 ‘태어남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과 같다. 아무 일도 아니다. 이 모든 내게 찾아 온 인연들을 그저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삶을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파블로 피카소

2

예술가로서 살아 생전 세상의 인정을 넉넉히 누렸던 사람, 자유롭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천재 화가 피카소에게도 늘 예술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그림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경쟁자 따위는 전혀 없을 것만 같던 피카소도 다른 화가들의 존재와 그들의 그림을 의식했다. 피카소는 화가란 본질적으로 일종의 수집가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다른 화가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가져와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그에게도 자신의 예술의 끝을 존재하지 않게 했던 경쟁자가 있었다.

1905년 피카소는 앙리 마티스를 파리에서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후원자에게 함께 후원을 받고 있었다. 후원자의 소개로 알게 된 마티스가 바로 피카소에게 멘토이자 평생의 경쟁자가 된다. 마티스는 피카소보다 12살이나 나이가 많았고, 이미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 화가였다. 마티스는 이름 모르는 신인 피카소의 재능을 알아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곧 스페인에서 온 나이 어린 이방인 피카소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기에 이 둘은 서로 자라난 환경과 타고난 성품의 다름의 차이가 커서 실제로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팽팽한 긴장감 사이로 서로 상대 작품에 대해 찬탄을 품었던 것이다.



▲ 파블로 피카소, <팔레트를 든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 92x73cm, 1906



▲ 앙리 마티스,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 55x46cm, 1906



▲ 파블로 피카소,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 50x46cm, 1907

마티스를 알게 된 1906년, 같은 해에 그려진 피카소와 마티스의 자화상이다. 피카소는 그의 친구 카사헤미스의 자살로 인해 시작된 우울했던 푸른 그림의 청색시대를 지나고 곡예사, 어릿광대를 주로 그렸던 장밋빛 시대를 맞이한다. 여전히 차가운 기운은 남아 있지만 대상의 실존적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실 상 피카소는 장밋빛 시대를 지나고 나서야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때 비로소 점점 더 많은 화상이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젊은 채색의 피카소의 자화상은 바로 이 전환적 시점에서 그려진 작품이다. 짧게 깎은 머리가 화가라기 보다 소박한 노동자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반면 그의 일년 뒤 자화상은 매우 다른 느낌이다. 이 무렵 마티스는 이미 화가로서 매우 자부심을 가진 안정적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속 마티스의 눈빛은 단호하고 다소 도전적이기까지 하다.



▲ 앙리 마티스, <푸른 누드>, 캔버스에 유채, 92.1x140.4cm, 1907



◀ 앙리 마티스, <금붕어와 팔레트>, 146.5x112.4cm, 1914,



▶ 파블로 피카소, <아비뇰의 아가씨들>, 캔버스에 유채, 243.9x233.7cm, 1907



▲ 파블로 피카소, <어릿광대>, 183.5x101.5cm, 1915

1906년 가을, 피카소는 마티스에 의해 아프리카 조각을 만나게 된다. 골동품 가게에서 콩고 조각을 산 마티스는 그의 후원자 거트루드 스타인의 집으로 가서 조각상을 보여준다. 그 때 마침 피카소가 그 집에 들르는 바람에 아프리카 조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둘은 함께 아프리카 조각과 같은 원시적으로 보이는 형상들에 몰두하게 된다. 마티스는 아프리카 조각을 통해 면과 비율을 재 창조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피카소는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특성에 매료되었다.

마티스는 <푸른 누드>를 그려 극단적인 인체 왜곡으로 강한 입체감을 나타내고, 거칠고 그로테스크한 붓질을 사용하여 원시적 강렬함을 표현했다. 피카소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려 이 작품에 맞섰다. 그는 원시 조각을 보면서 자연 형태를 양식화하고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고자 했다.

피카소는 늘 마티스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해 했다. 그래서 종종 마티스의 작업실에 들렀고, 마티스의 그림에 반응해서 만든 작품들이 상당하다. 그 중 하나가 <어릿광대>이다. 마티스가 자화상을 그리려다 추상적 그림으로 완성한 <금붕어와 팔레트>를 보고 피카소는 영감을 얻었다. 얼핏 보기엔 알 수 없는 조각들의 조합 같지만 둘 다 화가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그림이다. 마티스가 자신의 그림 속 오른쪽에 팔레트와 화가의 손을 숨겨 놓은 것처럼, 피카소는 자아의 모습을 상징

하는 어릿광대를 작품 속에 담았다. 마티스 식의 은유와 색을 통한 감정의 표현법을 따라 한 셈이다. 마티스도 <어릿광대>를 보고 자신의 금붕어가 이 작품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마티스도 피카소의 천재적 재능을 늘 의식했다. “내 그림을 피카소 그림과 같이 전시하지 말아 달라. 불꽃같이 강렬하고 번득이는 그의 그림들 앞에서 내 그림들이 초라해 보이지 않게”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를 인정했다. “딱 한 사람만이 나를 평할 권리가 있으니 그건 피카소다” 1954년 피카소의 경쟁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를 인정했고, 그의 죽음을 아쉬워 했다. “나를 괴롭혔던 마티스가 사라졌다. 나의 그림이 뼈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마티스이다. 그는 나의 영원한 멘토이자 라이벌이었다.”

육체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피카소는 다소 보수적이고 정신적인 마티스와 너무나 달랐다. 그래서 그 다름이 주는 마티스의 예술적 정체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끝없는 예술에 대한 탐구와 열정에 불을 지퍼 준 마티스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피카소를 마주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두 사람의 다소 신경질적인 경쟁으로 인해 그들의 예술 세계는 더욱 발전했고 20세기 회화의 거장으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이지윤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 석사,
2004~2016년 현재 고양문화재단 아람미술관 큐레이터,
저서로 <교과서 속 현대미술 이야기> 등이 있다.

눈꽃 사이로 함께 걷는 서오릉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겨울의 눈은 환상적인 마법과도 같다.
세상 그 무엇이 이처럼 세상의 풍경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을까?
그만큼 순백의 풍경은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서오릉을 떠올리면 보통 초록 잔디가 가득한 시원한 풍경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눈이 내리는 날의 서오릉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런 날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얀 별판과 나뭇가지 위에 뭉글뭉글 피어난 두툼한 눈꽃은 마치 여름날의 수국을 연상 시키는 다른 세상이다.

눈이 내리는 그런 날엔
창문 밖으로 함박눈이 하나둘 떨어져 수북하게 쌓이는 날. 마당의 강아지처럼 눈발을 푹썩거리며 뛰어놀고 싶어진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게. 하지만 도시에서 그런 낭만이 가득한 시간을 갖기에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럴 때는 근처의 왕릉을 찾아가 보자. 시원하게 펼쳐진 너른 들판과 왕과 왕후의 등그런 봉분 그리고 오랜 시간 주변을 지키고 서 있는 나무 위에 두껍게 쌓이는 눈이 방문자들을 반겨준다.
서울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조선의 왕릉은 도시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끝없이 빌딩이 펼쳐지는 서울 부근에서 이처럼 고요한 장소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행운이다. 그 대표적인 곳이 강남의 선정릉, 구리의 동구릉 그리고 고양의 서오릉이 있다. 이러한 왕릉을 가장 많이 접했던 것은 아마 초등학교 때의 소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에 등재될 만큼 중요한 곳이니 자주 찾고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서오릉은 선정릉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편이다.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왕과 왕후의 능이 다섯이나 모여 있기에 그 넓이도 상당하다. 특히 대빈묘 옆으로 능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로가 있어 설경을 즐기기에 모자람이 없다. 함박눈이 내리는 날에는 나무 사이로 살랑거리며 눈꽃이 떨어지는 서오릉의 그 길을 걸어 보자. 눈을 밟아 뽀드득거리는 소리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상쾌하게 만든다.

그와 그녀의 사정
SBS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 MBC의 <동이>, tvN의 <인현왕후의 남자>는 서로 다른 방송사에서 만들어졌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같은 시대 또는 인물을 다뤘다는 것이다. 그만큼 숙종과 인현왕후 그리고 희빈 장씨의 이야기는 극적인 부분이 있어 수많은 드라마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인현왕후는 숙종의 첫번째 부인이 아니다. 숙종의 첫째 왕비는 인경왕후다. 11세에 세자빈이 되고 두 공주를 낳았으나 천연두로 인해 20세에 요절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잠들어 있는 곳은 서오릉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익릉이다.
인현왕후는 그 이후에 맞이한 두 번째 부인인데 숙종은 이 꽃다운 나이의 왕비보다는 장옥정(희빈 장씨)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었다. 숙종의 소망은 하루빨리 장 씨를 후궁으로 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 명성왕후(현종의 비)가 눈을 부릅뜨고 견제하니 아무리 왕이어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국 명성왕후가 눈을 감고 나서야 희빈 장씨를 궁으로 부를 수 있었다. 왕의 총애를 받은 그녀는 결국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출궁하는 수모까지 겪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소재로 써내려간 한글 소설 '사씨남정기'가 그려낸 결말처럼 인현왕후는 왕비로 복위되었고 한때나마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장옥정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당했다. 나중의 일이지만 살아서는 기세등등하던 희빈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죽어서도 숙종 곁에 머물지도 못하고 구리와 광주를 전전했다. 희빈의 묘는 1969년 서오릉으로 이장되며 250년 만에 숙종과 멀리서나마 재회를 하게 된다.
결국, 죽어서 서오릉에 있는 명릉에 숙종 곁에 함께 누워 있는 이는 인현왕후고 그 둘이 나란히 누워 있는 쌍릉 뒤에 있는 단릉은 세 번째 부인인 인원왕후다. 살아서는 숙종의 애똥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인현왕후였지만 그 끝에서는 다른 여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위치가 된 것이다. 숙종과 인현왕후가 함께 명릉 위의 쌍릉에 묻히게 된 것은 숙종의 뜻이었는데 아마도 젊은 날 조강지처를 홀대했던 미안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태식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 소속
2014 시티은행 사보 여행기사 기고
동국대학교의료원보 동행 여행기사 연재
1인 매체 Korea-trip.com 운영

동국대학교의료원
그 안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사진+글
동국대학교병원 의료정보팀
최정민

만선의 꿈
매일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문득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밤새 차를 달려 울산 강양항에 도착했지요.
새벽에 도착한 바다는 어두운 파도소리만 들릴뿐 수평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곳까지 내가 왜 왔을까?
잠시 차안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빛 바다, 황금빛 태양, 그리고 꿈꾸는 어부의 모습,
갈매기는 어부의 만선을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물에 도착했다는 안도와 함께 갈매기의 환대를 만끽하며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겠지요.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황금빛 바다를 품속에 담아 이제 그들과 함께 꿈꾸려 합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개원 11주년 기념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개원 11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7일 5층 대강당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한 고양시 사암연합회 회장 대오 스님 등 대 · 내외 귀빈과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개원 11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 행사에 앞서 30년 장기근속 1명, 20년 장기근속 2명과 10년 장기근속 175명에게 장기근속상을 수여했다. ‘동국의학인상’은 신경과 김동억 교수, 서울리거병원 박상근 병원장이 수상했으며 ‘동국학술연구대상’에는 의학과 임균일, 박철웅, 안지현 교수가 수상했다. 이밖에도 병원 발전에 기여한 11명에게는 모범교직원 표창이 수여됐다.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세계 연합정형외과연구학회
차기 회장 선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세계연합 정형외과연구학회(International

Combined Orthopaedic Research Society: ICORS) 9차 학술대회에서 차기회장(Chairman Elect)으로 선출되었다. ICORS는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중국, 한국, 대만,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정형외과 연구학회가 정회원으로 아세안(동남아 5개국), 터키, 인도 등이 후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연합 학회로서 3년에 한번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현재 명실상부하게전 세계의 정형외과 연구를 대표하는 학회이다. 임균일 교수는 앞으로 6년간 차기회장 및 회장으로서 전 세계정형외과 연구분야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경과 김남희 교수,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공로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남희 교수는 지난 10월 21일 백범김구회관에서 진행된 제 20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임상신경생리학회에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학회 발전에 큰 공로를 기여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한편, 이번 학회는 미래의 임상신경생리 분야를 책임질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지난 20년과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의 수상이다.



경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과 의학계열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을 시행함에 앞서 착수보고회를 지난 8월 29일 본원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경영진단은 9월 1일 시작하여 2017년 1월까지 진행되며, 이날 보고회는 성공적인 경영진단을 위해 구성되는 의료혁신 위원회 구성과 목적, 운영방향 및 경영진단 진행계획 보고의 순으로 이뤄졌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의료원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및 동국대학교 의학계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뜻을 밝혔다.



중국 '왕홍' 초청 팸투어 진행

10월 2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동 추진하는 한국 의료관광 홍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왕홍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 왕홍이란, 왕뤄홍런(网络红人)을 줄인 신조어로 중국의 인터넷 스타를 칭하는 말이며, 한국의 파워블로거와 같은 개념이다. 이날 본원을 방문한 4명의 왕홍은 약 5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파워블로거들로서 원내 국제진료센터, 외국인환자 병동, 병원 외래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특히, 한방 여성의학과의 각종 미용시술에 대하여 끊임 없이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직접 미용침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체험 과정을 촬영하며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등 한국 의료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계획이며 이번 팸투어는 한국으로 홍보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의료봉사 펼쳐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10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송산노인종합 복지관 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중취 스님을 비롯하여 신경외과 김병철 교수, 재활의학과 전공의, 한방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총 23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병원을 찾기 어려운 복지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오후에 이루어 졌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소중한 봉사가 되었다.



심장질환 예방관리 건강강좌 개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혈관내과 이무용 교수는 지난 9월 7일 일산 동구 보건소에서 특강을 개최했다.

‘심장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강좌는 70여 명의 주역주민들이 참여 했으며 심장 질환에 대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좌에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한 증상과 심장병 예방 수칙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이상 증상 환자 발견 시 바로 응급기관에 신고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원인 질환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난임 치료 임상연구 진행
한방난임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진행된다.
연구제목은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에 관한 임상연구’이며,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여성 의학과 김동일 교수가 주관 연구책임자이며, 강동경희대 한방병원의 이진무 교수, 원광대 광주한방 병원 최창민 교수가 세부 연구책임자로 참여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향후 1년여에 걸쳐 100명의 원인 불명 여성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과 침구 치료를 적용하여 유효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게 된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100명의 난임 여성중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서는 40명을 선정 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TEL 031-961-9063

DUMC NEWS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2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증 획득 현판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10월 21일 이동석 경주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 의료기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2주기 인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 획득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질 향상 그리고 환자안전 시스템까지 인정받은 것이며, 인증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년간이다.
이동석 병원장은 “이번 의료기관 인증은 평소 철저한 환자 안전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이며, 이제는 인증 획득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고정밀 방사선 수술 시스템 구축
뇌종양 방사선 수술 시행**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뇌정위 방사선수술을 시행하고자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 선량측정기를 도입함으로써 고정밀 방사선 수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로 경주·포항에서는 유일

하게 뇌종양 방사선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상 뇌조직을 피해 병소 부위에만 다량의 방사선을 한차례 집중적으로 쏘아 종양세포를 없애거나 성장을 억제시키는 수술이다. 일반적인 뇌수술과 달리 전신 마취가 필요없고 두개골 개복을 하지 않아 뇌조직 손상, 출혈, 감염 등의 부작용도 없다. 또한 수술로 접근이 어려운 부위도 치료가 가능하다.

25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10월 21일 이동석 병원장 및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주년 개원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모범상, 장기근속상, 인증평가 관련 공로상, 저염레시피 수상자들의 시상식이 있었다.
이동석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교직원 단합하여 노력한다면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우들을 위한 뮤지컬과 클래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9월 14일 환우들을 위한 뮤지컬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10월 28일 클래식 음악 공연도 이루어졌다.
이동석 병원장은 “환우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위축을 환기시키기 위한 공연으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친근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10월 11일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지천 부의료원장과 김근우 병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20년 발자취 영상시청, 경과보고, 병원장 기념사, 부의료원장 축사, 모범직원 표창, 케익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김근우 병원장의 기념사에서는 “20년이란 성숙된 기간만큼이나 안정된 성장이 필요한 시점으로 구성원간의 단합과 노력이 중요하며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병원내 소방합동훈련 실시

동국대분당한방병원은 원내에서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을 위해 직장 자위대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6층 한방약국 조제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화재전파 및 화재 신고 ▲초기진화 ▲대피유도 ▲위험물 및 위험 시설 처리 ▲응급처치 및 후송 ▲소방차 도착 및 환자상태확인 ▲화재복구 순으로 진행됐다. 화재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연락팀, 소화반팀, 피난유도팀, 응급 구조팀으로 나눠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하고 옥내 소화전과 분말 소화기 사용 요령 등을 교육했다.

제1회 연우회 템플스테이 실시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연우회는 충남 공주에 위치한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예절습의, 범종체험, 차담 및 108배 등 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고 심신을 단련했다.
주지(원경) 스님은 차담시간에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거울과 같이 순수하고 집착 없는 마음을 가지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현대를 살아가는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교직원 워크샵 및 추계사찰 순례 개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10월 15일~16일 양평에서 1박 2일동안 전 교직원들의 소통과 협력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교직원 워크샵 및 추계사찰 순례’를 개최했다. 첫 날은 동국올림픽(족구, 빙고, 양궁)을 통해 1, 2, 3등과 남녀 MVP를 뽑아 시상하고 저녁 식사 후 담화의 장으로 마무리 됐다.
다음날 양평 용문사 성만 스님의 법문을 통해 몸과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학대학

경주의학관 교육환경 개선

동국대학교의과대학은 노후화된 경주의학관 리모델링 공사를 여름방학기간 동안 진행했다.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의학과 2학년 전용 강의실을 계단형 강의실로, 간호학과와 의학과 전용 강의실 전체에 유리칠판 도입, 의학도서관과 멀티미디어실 그리고 PBL실 공간을 새로이 단장했다. 학생회실 및 동아리실 환경개선과 해부실습실 환기시스템 설치 역시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계기로 정비하였다.

교수연구실 및 실습실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공간 효율화 및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교육·연구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각 실마다 보안시설 설치하여 경주의학관 보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현지방문 실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2016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현지방문 평가를 10월 18일, 19일 양일간 받았다.

이번 평가는 6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은 대학 사명 및 발전 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전 영역에서 평가를 받았다. 한의과대학 박용기 학장은 "이번 평가인증으로 한의과대학의 숙원사업인 경주 한의학관을 리모델링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임상실습 및 연구환경을 갖추게 되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피력했다.



나눔의 동행



일면 스님, 병원발전기금 전달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지난 9월 12일 환자들을 위한 병원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은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 태석기 동국대학교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됐다. 일면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바라며, 환자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뜻을 전했다. "광동학원 70주년을 맞아 신도들과 마음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기부금으로 의료기기와 환자용 리프트, 전동침대 등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동국대의료원, 법보신문 일일시호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치료지원

동국대학교의료원과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대표 심정섭)은 지난 8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적자문과 함께 필요시 대상자에 대한 시술 및 수술 등을 지원한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170만 명 이주노동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의료지원을 할 것이며, 일일시호일과 협력하여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닌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실천 도량,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다이아몬드	5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무료)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하며,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복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 TEL 031. 961. 5713 FAX 031. 961. 5719 e-mail dumcc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CS경영팀

▶ TEL 031. 961. 9362 FAX 031. 961. 9369 e-mail kingdom@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기획예산팀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원무팀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귀욱	김경욱	김성권	김은희	김민서	박명호	박진우	손정은	염윤정	이경애	이영실	이준규	자비나	정영희	조은영	최윤혁	한윤용
강보라	김경희	김성원	김재학	김현정	박미형	박찬규	손정화	염주홍	이귀숙	이영일	이준길	남세상	정원기	조혜영	최윤호	한윤희
강석진	김국현	김세민	김정미	김형관	박보경	박현미	손주연	오민규	이규홍	이옥진	이지영	장태하	정윤정	조혜원	최인준	한은숙
강연주	김남희	김세희	김정민	김혜미	박서연	박현숙	손주연	오성은	이나현	이원찬	이정연	장순자	정은경	조혜정	최정진	한은소
강지영	김덕래	김소현	김정숙	김혜실	박성미	박현숙	손효정	오정미	이말보	이원용	이지원	장연화	정이선	조희남	최정숙	한정훈
고유삼	김덕희	김솔아	김정숙	김혜진	박성원	박혜진	신경민	오진숙	이문정	이원호	이지은	장유민	정인영	주은명	최종기	허 봉
구병수	김도현	김소만	김정화	김희진	박성주	박효진	신경수	오재원	이미영	이유나	이진호	장충섭	정인원	지영한	최종용	허소래
구순점	김문식	김순애	김주현	남유화	박세진	방선호	신은재	유갑삼	이미희	이은주	이태영	장태영	정재우	전경애	최지윤	현경석
구준범	김미경	김시연	김지예	남현미	박수연	배상만	신은희	유묘상	이민우	이은하	이향년	장예현	정재현	차옥련	최진영	현미숙
권경순	김미숙	김영미	김진우	남효연	박숙희	배서영	아름다	유은정	이병기	이자경	이향미	장호근	정지우	채기수	최창익	해철스님
권도윤	김미영	김영복	김차기	남희련	박소자	백윤정	윤재단	유인협	이병성	이재우	이현희	전진영	정호근	채봉희	최한기	홍민재
권두경	김미영	김영자	김치선	노미경	박시우	서미경	안숙자	유정임	이선아	이재환	이형경	정경숙	정희정	채석래	최혜용	홍승욱
권상숙	김민선	김영진	김태규	라은미	박영근	서영문	안연순	유정희	이선희	이재희	인승순	정경윤	조경애	형명스님	최혜숙	홍은기
권순석	김민철	김용배	김태숙	류태안	박영경	서영진	안영길	유주형	이소영	이정백	임선희	정경윤	조경애	조경애	최희정	홍은소
권소민	김민준	김용석	김태영	모종은	박재경	서재일	안종희	윤복면	이수경	이정화	임시현	정다영	복지재단	최문희	최희정	홍은희
권일진	김방희	김용숙	김태은	무소스님	박재희	서 준	안단형	소수임	이수현	이정훈	임예은	정만스님	조동삼	최봉용	하연주	홍종숙
권태웅	김복란	김율리	김태호	문주연	박정숙	서희주	양경수	윤광경	이순애	이정희	임윤정	정미라	조민주	최상돈	하정희	황보수진
권효숙	김상규	김은미	김필자	박경자	박정화	설함미	양경승	유정미	이순희	이종득	임종대	정석화	조성민	최서영	하현지	황윤자
권희재	김선경	김은애	김하겸	박기호	박제진	소선기	엄희경	유정호	이승철	이종철	임철호	정숙희	조승호	최영진	한미정	황정희
김강림	김선희	김은영	김한성	박동우	박준재	손귀득	여민영	이강현	이애영	이주은	임춘화	정순탁	조영순	최예지	한송이	
김경아	김성경	김은정	김해정	박동진	박진우	손민정	여민혁	이경미	이영숙	이주형	임화철	정승현	조윤정	최유안	한영희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white lotus flower with yellow-tipped petals and a green stem with leaves. The background is a soft orange gradient.

절취선

성 명 (가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불교계	☐ 교직원	☐ 기업/단체	☐ 기타 ()
	☐ 동문 (입학년도 :)	대학(원) :		전공 :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기부 추천인				

약정액	현금	원 (₩)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발전기금위원회 일임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학교발전기금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 지정기금 (지정)		
기부의견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년 일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dumcco@dumc.or.kr / 팩스 ▶ 031•961•5719
- 문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031•961•5713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10326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6 Winter | VOL. 9

‘고려의료’라는 건강관리 서비스 ‘동’글 극의료팀 명칭을 ‘고려의료’로 변경합니다

고려의료 극의료팀 명칭변경
고려의료 극의료팀 명칭변경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취선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진료과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지향
- 동서양 의학 접목을 통해 각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용
- One stop system 건강진단 실시로 당일 건강진단 후 신속한 당일결과 상담(판정) 가능
- 고객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 건강검진 후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본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정밀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 숙박검진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검사하기 어려운 노약자, 지방거주자 및 편안하고 여유롭게 검사하고자 하는 수검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비신랑·신부검진, 청소년검진, 장수검진 등 생애 주기별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31. 961. 7698~9, 7702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hpc/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 본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종합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플래티늄 종합검진	프리미엄 종합검진에 뇌혈관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는 VVIP를 위한 가장 최고급 종합검진입니다. 주요 암질환과 각종 위험인자를 광범위하게 정밀진단하는 최상의 프로그램입니다
특 화 종합검진	가족력, 이력 등에 따른 특화된 검진으로 개개인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54. 770. 1430~3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gj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031-961-7955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054-770-1400~1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031-710-3712/378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6 **Winter** | VOL. 9

발행인 태석기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6년 12월 1일 (통권 9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일러스트레이션 필몽
인쇄 (주)신화프린팅 031 · 905 · 2727